

R-28. 치주환자의 행동과학적 양태연구

조민혁*, 윤지현, 이나나, 이진규, 김성조, 최점일

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목적 및 연구방법

치주질환의 처치를 목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방문사유, 잇솔질 양태, 흡연 습관, 구취 인지, 심미 인지에 관한 행동과학적 연구를 시행하고자, 부산대학교 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초진 환자 (총 140명, 남 79명, 여 61명, 21세-69세)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. 설문에 의한 응답기록을 토대로 통계적 처리하였다.

결과

남성 환자는 주로 개원의의 의뢰로 (63%), 반면에 여성 환자는 주로 가족, 친구, 친지의 소개로 본원을 방문하였다 (55%). 잇솔질 양태를 살펴 볼 때 남성, 여성 모두 부드러운 칫솔을 주로 사용했으며(남 71%, 여 80%) 칫솔의 교환주기는 남성 환자에서 3개월 이상이 가장 많았고 (41%) 반면 여성 환자에서는 1-2개월이었다 (41%). 남성, 여성 환자 모두 주로 수직으로 잇솔질을 하며 (남 46%, 여 42%) 잇솔질 시간은 대부분 1-3분이었다 (남 82%, 여 80%). 잇솔질 교육은 학교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는 주로 치과에서 받았다 (남 81%, 여 81%). 치간치솔/치실의 사용자는 정보의 부족으로 드물었다 (남 20%, 여 26%). 흡연은 남성환자에서 하루에 10-20개피 정도 (48%), 10년 이상 흡연경력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다 (83%). 남녀 대다수가 흡연이 구강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(남 83%, 여 77%). 구취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(남 70%, 여 70%),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주질환이 가장 많았다 (남 67%, 여 65%). 구취가 낫 경우 잇솔질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(남 64%, 여 49%), 입냄새 치료를 위해 치과에 내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(남 11%, 여 5%). 심미적 인지에서는 좀 더 하얀 치아를 원하는 환자가 가장 다수를 차지했고 (남 75%, 여 70%), 치아의 배열 불량, 치근의 노출, 치간이 개 등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.

결론

치주과에 내원한 초진 환자의 행동과학적 양태를 분석해 볼 때, 환자의 내원 경위, 환자의 구강위생 습관 및 정보인식도, 흡연양태, 구취의 인지도와 그 해결방식, 심미적 인지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할 수 있었고, 이 정보는 궁극적으로 치주질환 환자를 포괄적으로 치료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.